



OCT 2025
VOL. 282

▲ 교수학습센터가 지난 1학기에 운영한 프로그램은 개별 학습 맞춤형, 선후배와 공동 목표에 도전하는 그룹형 등 총 9개에 523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달성률은 81.4%에 달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 목표를 이뤄낸 우수 학습자들의 환하고 밝은 모습들 [관련 기사 6페이지] [뒷줄 왼쪽부터 박세윤(컴소3), 토히르벡(컴소2), 정명국(컴소3), 김한별(컴소4) 앞줄 왼쪽부터 홍정인(간호1), 차승민(영보2), 박소하(영보2), 황미숙(성서3), 김민정(사복4)]

KÓKKOS 10



「씨앗에서 열매로, 1만 프로젝트」

학교 재정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

월 1만 원 후원자 1만 명, 년 14억 목표

한국성서대학은 학교 재정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씨앗에서 열매로, 1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장학과 학습 지원, 그리고 머물고 싶은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씨앗에서 열매로, 1만 프로젝트」는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 프로젝트는 월 1만 원씩(해의 거주 후원자는 월 10달러) 후원하는 후원자 1만 명을 모아 우리 대학을 돕는 기도와 재정의 든든한 후원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갈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교무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교무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최정권 총장, 총괄 위원장으로 강규성 부총장을 선임하였다. 대외협력팀(팀장 전영호)이 주무 부서로 실무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 아래 홍보, 모금 담당, 후원자 관리 등 3개 부서를 두었다. 추진위원

회는 이 외에도 이사회와 총동문회를 총장과 협력하는 기구로 병치하였다.

현재 우리 대학의 약정 후원자는 모두 915명이며 후원 금액은 년 약 3억 8천만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5년 후 2031년 2월까지 후원자를 1만 명으로 늘리고 후원 금액은 년 14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가 기대하는 후원자 주력 그룹은 동문이다. 1만여 동문 중 700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9월 말 안에 신규 74 구좌, 2025년 말까지 733 구좌를 확보한다는 기세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규성 부총장은 12일 아침 직원기도회에서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보직 교수들이 1만 프로젝트의 재정 확충 운동에 먼저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직원들은 우리 대학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지인과 주변을 대상으로 이 운동의 당위성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진짜 의미는 모르면서 성경을 말한다 딤편 1:7

이민규 목사(성서학과)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 의미조차 모르고 자기 생각, 감정, 교리, 경험을 덧씌워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을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자.

둘째, 의미를 모를 때는 쉽게 단정하지 말고, 묻고 배우며 기다리자.

셋째, 나의 감동보다 본문의 맥락을 먼저 보자.

넷째, QT는 내 기분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다.

성경을 가볍게 다루지 맙시다.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우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학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니설교

수시 입시 면접고사 참여율 85.3%

올해 지원자
“스스로 전공 선택한 비중 높아”

최육열 본부장
우리 대학만의 선발 기준 강조

2026학년도 수시모집의 첫 관문인 면접고사가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캠퍼스 곳곳에서 치러졌다. 면접고사에는 지원자 1,282명 중 1,093명(85.3%)이 참여하였다. 이는 전년도 보다 인원수는 133명 더 참여한 것이지만 참여율은 91.7%에서 85.3%로 다소 떨어졌다.

학과별로는 성서가 지원자 84명 중 참여자 78명(92.9%), 사복 292명 중 239명(81.8%), 영보 168명 중 140명(83.3%), 간호 520명 중 456명(87.7%), AI 218명 중 180명(82.6%)이었다.

면접위원들은 금년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비교적 밝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고 말했다. 성서학과 박태수 교수는 “지원자들이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한진호(AI융합학부) 교수는 “전공을 주위의 조언보다는 지원자가 스스로 선택한 비중이 작년보다 높았고 우리의 신앙훈련 정보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많이 띄었다”라고 말했다.

최육열 입시본부장은 입시는 지금부터 라고 말했다. 그는 “선발 기준은 복음전도자의 자질, 우리 대학에서 학업 지속 가능성, 학업에 대한 의욕, 전적 학교의 성적 등이며 우선순위로 이 같은 순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7일 최초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각 학과 교수들이 면접위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며 합격자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데이 10월 30~31일 이틀간

기념예배, 장터 및 게스트 초청 등 풍성
체육대회,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흑백전으로



▲ 체육대회가 열리게 될 노원마들스타디움

2025년 크리스천데이가 41대 With총학생회(회장 유준하) 주관으로 10월 30~31일 이틀간 진행된다. 미래 세대에게 종교개혁(508주년)의 정당성을 환기하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익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크리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하였다.

크리스천데이 : ‘Ctrl +F5’

크리스천데이는 Ctrl +F5(나의 신앙생활을 새로고침 해보자)을 주제로 종교개혁의 의미와 역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뜻이 있다. 조현진(성서학과) 목사가 기조 말씀을 전하며 교내 곳곳에 소통과 교류, 문화 체험, 화합과 연대의 난전이 펼쳐진다.

찬양과 워십이 있는 ‘ALLDAY JESUS’와 초청 아티스트의 수준 높은 공연에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틔워줄 것이다. 각 동아리가 준비한 식음료와 간식을 비롯해 플리마켓의 소소함을 친구와 나눠가며 가을의 추억을 쌓아 볼 수 있다.

체육대회 : ‘낭살낭죽’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열릴 체육대회의 주제는 ‘낭살낭죽’(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다!) 학과별 흑백팀 대결로 펼쳐진다. 흑팀(성서, 영보)과 백팀(사복, 간호, AI융합) 대결로 경기는 축구 농구 발야구 계주 줄다리기 공굴리기 혼성계주 등이 준비된다.

참가자에게 점심 도시락이 제공되며 팀별로 펼쳐지게 될 치열한 응원전도 시선을 머물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인 경품추첨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 경계 변경 안’ 승인

갈멜관 증축 계획 첫 관문 통과

노원구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에서는 9월 26일 갈멜관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경계 변경 안’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갈멜관 증축 계획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며 다음 단계인 서울시로 넘어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서울시에 본건이 송부되면 서울시 의회가 매년 2월에 개최, 2월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즉시 서울시심의회의에 부의되며 4월 이후에 서울시 심의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최소한 7-8개월이 소요) 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갈멜관 증축 계획은 현재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갈멜관을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증축하여 신설 시융합학부의 실험실, 강의실 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원의 시설을 개선 확장하여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다.

현재 학교 땅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톱날같이 부정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현재) 이를 정형화(변경) 한다는 내용이다. 경계 변경 안이 최종 승인되면 갈멜관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용적율이 200%(30.9% → 60%)로 상향돼 증축이 가능하다.



▲ 현재

[노란색: 제2종 주거지역] [연두색: 자연녹지]



▲ 변경

원벤 주변으로 노란 국화 화분 단장

“학우를 배려하겠다는 향기가 느껴져”



▲ 밀알관 앞 원벤 주변으로 노란 국화가 가을을 알리고 있다.

밀알관 앞 원벤과 정문 쪽 진입로 양옆을 따라 노란 국화 140개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잘 어우러지며 캠퍼스를 소담한 정원으로 물들이고 있다.

국화 화분 단장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에서 잠시 멈춰 가을 사색에 잠길 공간을 마련해주는 취지로 작년부터 배치해 오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가는 길이 국화 향기로 가득해 웬지 기분이 참 좋아지고 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아졌다”라는 반응이고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센터에 국화가 배치된 건 학습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시면접을 앞두고 미리 학교를 방문한 한 지원자는 “노란 국화가 참 보기 좋다. 학우를 배려하겠다는 향기가 느껴졌고 자신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좋은 만남의 축제」 범 성서인 행사로 확대

설교자 4,50대
성서대 출신 목회자 중심

2025 제16차
좋은 만남의 축제
이로써의 기도 외에 다른 영도로는
이런 풍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서대
학내복음화25

10.12 sun - 31 Fri
주일 PM2:00, 월-토 PM8:00-09:30

강사

이우근 목사 중앙성서교회 10/12, 18, 31	최서현 목사 중앙성서교회 10/13, 17, 28	전영환 목사 중앙성서교회 10/19, 26	수진 성진 복합종교 10/15	백영수 목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10/22	김영우 목사 PK OLS, 스터디 10/23-24	윤대우 소경 한국복음화진흥원 10/29
박광훈 목사 중앙성서교회 10/14	김정훈 목사 중앙성서교회 10/16	권순철 목사 한국성서대학교 10/18	이영국 목사 중앙성서교회 10/20	한세훈 목사 성서대학교 10/21	김정규 목사 중앙성서교회 10/27	구대식 목사 중앙성서교회 10/30

중앙성서교회(담임목사 이우근)가 2026년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연속 「좋은 만남의 축제」를 개최한다.

이우근 목사는 “이 축제가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의 단독행사로 지켜왔는데 올해부터 한국성서선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교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넓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성서선교회, 한국성서대와 합력을 통해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는 ‘기도를 시작합니다’(막 9:29).

이우근 목사가 12일, 15일, 31일 세 차례 말씀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18일은 화도드리교회 권순실, 20일 함평 성우성서교회 이광국, 21일 성서대학교교회 반세호, 30일 초대교회 구재서 목사 등 선교회 소속 4,50대 목회자를 주축으로 짜여 있다. 설교자 등 강사 대부분이 한국성서대 출신이며 성서선교회의 역동적인 사역자로 성도들에게는 성서선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비전 등을 강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성서교회는 1956년 우리 대학을 세운 강태국 박사가 설립한 한국성서선교회 중심교회로써 지역과 국내외의 선교 사역에 큰 헌신을 감당해 왔는데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과 영적 부흥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담튼튼 우리가족」 연천 행사 2,700여명 참여

김승옥 교수 총괄
‘유아를 흡연으로부터 보호’ 캠페인



▲ 연천 행사에서 영유아가 로봇을 작동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고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장인순)이 운영하는 「노담튼튼 우리가족」이 19일 경기도 연천에서 2,700여 명의 영유아와 가족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노담튼튼 우리가족」은 유아기부터 흡연의 위해성을 알려 가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준다. △ 가정에서 4주간 동화 기반 가족 그림책 활동 △ 지역 행사 및 축제와 연계 과정이 있다. 김승옥 교수(영유아보육학과)가 총괄책임자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이다.

연천에서는 ‘로봇과 함께 건강 댄스’, ‘흡연으로부터 건강해져요’, 등의 로봇 놀이와 ‘노스모킹랜드’, ‘3D 입체퍼즐·스티커’를 비롯 ‘행복한 네컷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김승옥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건강뿐 아니라 가족 간 화목과 유대 강화에 우리 학교가 앞장서는 행사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노담튼튼 우리가족」은 지난해 약 8만 9천 명(유아 2만 7천 명), 올해는 9만여 명(유아 2만 7천 명 포함) 참여를 목표하고 있다. 사업운영국은 남은 7차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2025 1학기 교수학습센터

2025-1학기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은 모두 9개이고 참가인원은 523명이다. 이들 중 복수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를 빼면 실인원은 268명으로 재학생의 27.5%(977명, 25년 3.7일 기준)가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셈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은 학사경고자 등 기초학습능력/공부하는 법을 돕는 프로그램부터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연구하여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지에 발표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학습 형태도 개인별 학습 능력과 목표 달성을 돕는 개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공동목표를 가지고 같은 과 동료들이 같이 학습하는 그룹형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우들의 목표달성율은 약 81.4%이다.



이성아
(NSLB 교육지원 단장)



윤혜진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임수아
(연구원)



박예진
(연구원)



전하리(간호4)

NSLB 마라톤 프로젝트

마라톤과 같이 1,2학기 연속으로 학습의 여정을 함께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1학기 19명, 2학기 7명 총 26명이 활동 중이다. 1학기 우수 참여자는 전하리(간호4) 학우. 노선 학습 페이지를 스스로 관리하며 학습 습관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성적이 크게 향상 되었다.

학업(學UP)공동체

학업(學UP)공동체 팀을 이루어 한 학기(10주)동안 전공 및 교양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그룹형 스터디 프로그램. 열품타(열정을 품은 타이머 앱을 사용하여 학습 습관을 기르는 유형), 투빨(선택한 과목 2개 모두 A+를 목표로 학습하는 유형), 같은과목(팀원과 함께 과목 1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유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팀워크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운다. 155명 55개 팀이 시작하였고 118명 43개팀이 활동을 완료하였다. 목표달성율은 76.1%. 우수참여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팀의 이효정, 이만효 학우(성서3). 만학도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주 성실히 활동에 참여하여 같은과목 장학 부문에서 1등으로 선정되었다.



이효정(성서3)



이만효(성서3)

학습법 워크숍

효과적인 학습법을 전달하는 특강 프로그램. 1학기 주제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글 쓰기'(LMS 온라인 수강, 47명 참여, 2학기 주제 '레포트 작성, 이제는 프로처럼!' (대면 강의, 22명 참여), 앞으로는 'Chat GPT 활용'과 관련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러닝 프로젝트 페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전략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1학기 '학과별 슬기로운 학습 노하우 공모전'. 개인 8명 팀 5팀(15명) 참여하여 13개 작품 응모.

결과물 예: 「성서대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A+도달 관리 가이드」. 2학기에는 '우수 과제물 수행 과정과 전략'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다.

Goal-In Project

하계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학습목표 예: 「기초헬라이어 히브리어 공부」, 「자격증 취득」, 「토익600점 달성」 등. 개인 26명, 팀 10팀(23명) 참여 현재까지 개인 16명, 팀 9팀(21명)이 활동을 완료. 12월 19일로 마감을 연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Design Thinking

문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 4팀(11명) 참여. 결과물 제출 마감 12월 31일.

주제 예: 채플 출석 태그리스 적용하기(팀명-모세혈관, 참여자-홍정인, 원혜인, 박진희(간호1)) 「강의실 청결하게 유지하기」(팀명-2025를 DESIGN, 참여자-김종환(컴소3), 송준서, 신수아(컴소2)) 우수참여자: 홍정인 학우, NSLB 마라톤 프로젝트와 Design Thinking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학습을 기록하고 점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와 좋은 성과를 얻었고, 팀원들과도 협업하며 자신감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홍정인(간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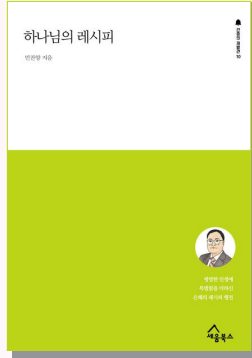
우리 대학, 한양대와 「대학기초 · 융합교육컨소시엄 운영」 협약 체결

혁신사업단(단장 강규성)은 지난 12일 한양대학교가 주관하는 「대학 기초·융합교육컨소시엄」에 회원교로 참여하는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초 및 융합교육 분야에서 교육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역량과 융합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교수학습 지원, 우수 사례 공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혁신과 질적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님의 레시피」 출간

민찬양 목사



민찬양 목사(한일성서교회 담임, 리스텝 미니스트리 대표)가 신간 「하나님의 레시피」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관찮아 보였으나 관찮치 않은 보통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실패, 약점과 상처 등이 헛되지 않음을 증언한다. 삶을 요리 과정에 비유, 주님이 만드신 인생 요리의 레시피와 말씀으로 버무려 풀어간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 옥탑방 신혼 시절을 거쳐 반지하 생활의 고달픔과 일하는 목회자, 병상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역의 순간까지 한 인간의 희노애락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머무를 때 최고의 인생 맛집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책 판매 수익금은 성서대 장학금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레시피」 / 민찬양 / 세움북스 / 270p / 15,750원

백주년기념교회, 장학금 1천만 원



▲ 정인철(왼쪽) 목사와 대학원 정택중 원우

백주년기념교회(정한조 목사)가 15일 장학금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동문이면서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 중인 정인철(사복 55회/신대원 25회) 목사는 대학원 채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대학이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며 복음 전도자 양육에 헌신해 온 수고의 여정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대학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주길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오윤선 교수, 옥조근정훈장 받아 학교에 발전기금 5백만 원 후원도



▲ 오윤선(왼쪽) 교수와 최정권 총장

지난달 정년 퇴임(8월 30일)한 오윤선(기초교양교육과) 교수가 15일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교원으로서 오랜 기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 되었다. 훈장과 포상은 최정권 총장이 전달하였다.

오윤선 교수는 학교 발전을 위해 5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그는 “지난 33년간 성서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며 감사와 함께 학교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기 영어졸업고사 52명 합격

2025학년도 2학기 영어졸업고사가 27일 오전 11시 갈멜관 305에서 진행되었다. 92명이 신청, 83명이 응시(90%)하였는데 이 가운데 52명이 합격(63%)하였다. 전년도 2학기 합격률 67%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우리 대학의 꿈은 이겁니다



최정권 총장

우리 대학을 세운 설립자의 꿈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립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향으로 '전국 복음화'와 '민족정신 개조'와 '민족의 생활개선'에 두었습니다.

1952년 5월 13일 7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한 학교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였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후 학교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을 때 교육부 관계자는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문 닫을 대학으로 봤고 인간적으로 그 진단은 옳아 보였을 것입니다.

설립자에게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자라난 제 입장으로 바라본 설립자는 한 교회의 인자스러운 목회자라기보다는 민족의 개조를 염두에 둔 광야에 선 사상이었고 교단 정치가 보여주는 부패함을 극렬히 배격한 개혁자 같았습니다. 당시 본인의 배움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념 속에 유명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파나 교단, 재물 따위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성서에 입각, 부르신 소망을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육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말 그대로의 삶을 우

리에게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의 대학은 소수만 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었던 2025년 현재는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석박사를 취득해야 하고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경험과 교육의 질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수를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 대학은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치열한 대학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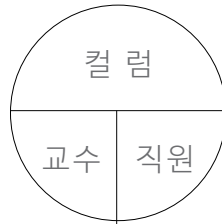
2025년 10월, 만나보리광장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올려보내고 같은 자리에서 고민했을 이전 총장님들을 생각합니다. 대학의 꿈과 세상의 이념이 부딪치면 언제든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였을 그 분의 미련해 보일 만큼 우직한 결정들을 봅니다.

교육부 방침을 따라가면 최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서」를 보았습니다. 다소 미련해 보이는 길을 걸으면서 한 톨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총장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총장의
편지



김소희 교수(간호학과)



임수아 연구원(교수학습센터)

‘나’라는 콩나물 기르기

작년부터 ‘책서탐방’이라는 간호학과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 3주에 한 권 고전 문학이나 인문학 서적 한 권을 정해 읽고 짧은 감상문을 제출한다. 그리고 소감을 나누고,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한다.

작년 첫 모임 때이다. 학생들이 고전 문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첫 번째 책은 가벼운 소설로 선정했다. 하지만 첫 모임을 앞두고 학생들이 제출한 다섯 줄짜리 감상문을 받아 읽으며 ‘이것이 대학생의 감상문이란 말인가?’ 탄식하고,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토론이 가능할까?’ 걱정하고, 모임 당일 여러 핑계로 불참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 동아리가 지속될까?’ 실망했었다. 누가 활동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온갖 핑계로 감상문도 내지 않고, 모임에도 불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학생들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글 읽는 것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영상을 시청하고,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도 짧게 편집된 영상으로 시청하는 MZ 세대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았다. 그래서 콩나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기로 했다. 감상문이 다섯 줄이어도 실망하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 설명해 주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타박하지 않고 들어주면서 말이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학생들은 15권의 책을 읽었고, 꽤나 잘 읽히는 감상문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서투르지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끝까지 읽어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

콩나물은 물을 주면 다 빠져나온다. 그래도 어느 날엔가 보면 쑥 자라 있다. 첫 페이지를 펴기는 어렵다. 끝까지 읽기는 더 어렵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읽어보자. 그리고 느낀 점이나 고민되는 점을 다섯 줄이라도 써보자. 그렇게 몇 권을 읽고 쓰고 나면, 어느 순간 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키가 커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

얼마 전 18개월 된 아들과 영유아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신체 발달뿐 아니라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시기더군요. 그날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기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말고, 부모가 먼저 보여주세요. 아이는 결국 부모를 보고 따라 하며 배우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인사해야지" 하는 대신, 제가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손 씻는 일상의 습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부모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아들이 말을 배우면서 제가 반려견 번개와 지내는 모습을 고스란히 따라 합니다. 공을 던지며 "번개 가!"라고 하는가 하면, 강아지를 혼내며 "번개 안 돼!"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남편을 따라 저를 "엄마" 대신 "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면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늘 밥 먹기 전 함께 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두 손을 모으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더니, 밥을 먹다 말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식전 기도는 봤어도 식중 기도는 처음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며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일은 부모로서 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보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억지로 가르치려 애쓰기보다, 집 안과 밖에서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교육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오늘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너희가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화려한 외형이 나 큰 규모보다,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보다도,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진행한 ‘사랑의 돌봄’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주말 내내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닭죽도 끓이고, 장조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 하나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순종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저를 기억해 주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2년 전 수술 후 건강이 여의치 않아 교회 출석이 어렵다던 교우의 전화였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3-4 남전도사랑방은 먼 곳에서 출석하는 한 형제님의 가정 심방을 하였는데, 그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며 이를 친구분께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교회이구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 주님이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나그네를 찾아가 손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교회. 주님께서 상처를 품고 아파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서대학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완벽하지 않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모여 강물이 되고,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35

추 석 조미영

높고 맑은 푸른 하늘
들녘에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오래된 기억이 피어나다
어머니와 빚어내던 송편
솔잎 향 속에 솔솔 피어나던
웃음소리 정겨운 이야기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함께 모여 따뜻한
밥상 위에 둘러앉는다
추석은
그냥 명절이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이어주는
끈
일 년 중에 제일 크고 둥글다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 삶도 하나로
둥글게 이어지기를……



<https://blog.naver.com/lissao/22287105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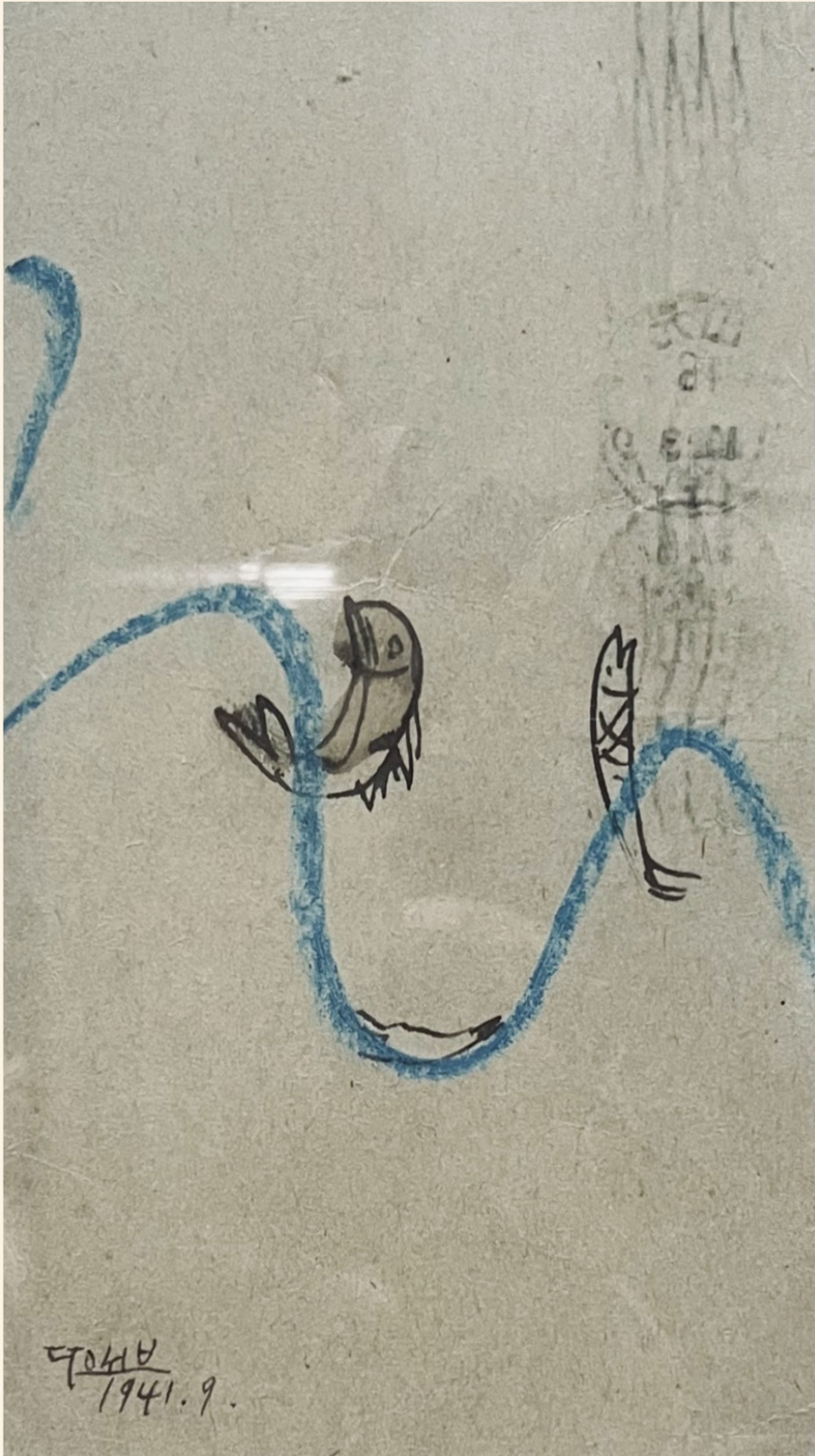
농경사회에서는 달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예측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만월(滿月)의 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음력 8월 15일 추석(한가위, 仲秋節)이다.

추석에는 달의 모양을 본 떠 나라마다 달떡을 만들었다. 중국은 만월을 상징하는 월형(月形)으로 밀가루로 만든 빵 안에 앙금이나 견과류 과일 등을 넣어 ‘월병’(月餅)을, 일본은 쌀가루를 반죽해 동그랗게(月形) 빚어 찌내 팥앙금이나 콩가루 등을 묻히거나 속에 앙금을 넣은 츠키미당고(月見團子)를, 한국은 반월형(半月形)으로 멥쌀가루를 반죽해 솔잎을 깔고 찌는 ‘송편’(松餅)을 만들었다. 송편은 소를 넣기 전에는 보름달 모양이고, 콩 밤 대추 깨 등의 소를 넣고 찌면 반달 모양으로, 송편 한 개에 보름달 반달 모양을 모두 담고 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달떡을 빚는 도란도란한 정경(情景), 흩어진 가족을 이어주는 끈끈한 사랑이 둥근 달로 맛있게 떠올랐다.

파도와 물고기 이중섭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62호



소형아파트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난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노원구가 문화 도시로 바꾸려는 의지로 만들어낸 노원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 거장들의 삶과 예술에서 만난 이중섭의 그림에서 느낀 감정이 가난함이 었다는 게 역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내는 엽서에 그려진 이 그림의 파도는 아마도 몽땅 연필처럼 이중섭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마지막 바닥을 드러낸 크레파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그려진 생선 세 마리 중의 두 마리는 잉크 부족으로 비늘조차 그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배 은박지에 못으로 그린 그림들은 그림 재료를 살 수 없었던 예술가의 마지막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못으로 그린 그 선들이 보고 싶은 가족들의 몸으로 다시 탄생 되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거친 파도가 세 마리의 물고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들기는 하였지만 서로를 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에 시선을 두고 있어 예술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만일 파란 선이 없었다면 이 세 마리의 고기는 모래사장에 놓여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은 고기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파란 선이 있었기에 그들은 살아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이중섭을 보면서 어느 영화 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난했지만 예술가의 정신을 잊지 않았던 그림 앞에서 노원구에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 총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유아들이 반주에 맞춰 흥겨운 리듬을 익히고 있다.



다대어린이집

‘찾아가는 예술교육 - 아살라토 악기 연주’

4일 유보통합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아프리카 전통 타악기 ‘아살라토’를 활용해 유아들이 소리를 직접 듣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을 타고 만들어 보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소리의 원리를 확인하고, 동요 반주에 맞춰 함께 연주하며 흥미를 높여갔다. 낯선 악기였지만 호기심을 갖고 놀이하면서 리듬과 소리 변화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예술 감수성과 표현력을 증진시켰다.

[소망반 지다는 교사]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이 진행중이다.



권진복희생원예를

생명지킴이 교육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자살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화에 따라 조은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진행했다. 교육은 △자살에 대한 이해 △생명 존중의 가치 인식 △생명지킴이로서의 활동 전략 중심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 효과도 확인되었다. 직원들은 위기 상황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생명지킴이를 수행할 행동 전략 등을 습득했다. 조은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책임감,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은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롤링볼 뮤지엄에서 구슬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권진어린이집

‘롤링볼 뮤지엄’ 현장학습

3일, 만3~5세 영유아들과 ‘롤링볼 뮤지엄’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영유아들이 레일 위를 움직이는 구슬의 신기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흥미와 큰 관심을 보였다.

다양한 롤링볼 작품들을 감상하고 여러 형태의 레일 길 위에 크고 작은 공을 굴려보면서 공의 빠르기와 마찰, 가속도를 살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됐다. 친구들과 네모 블록을 연결하는 구조물도 만들고 자유롭게 굴리며 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현장학습을 마치고 롤링볼 뮤지엄의 경험을 떠올리며 블록 위에 공과 바퀴로 사고력을 확장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백합반 김효진 교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사랑의 돌봄 세트.



성서대학교교회

사랑의 돌봄 사역

8월 30일과 31일, ‘사랑의 돌봄’을 통해 교회 안의 살림이 필요한 77곳의 가정을 찾아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다. 돌봄에서는 정성으로 준비한 녹두 닭죽과 소고기 장조림, 김부각을 예쁘게 포장해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고 특별히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섬기며 사랑의 손길을 더해 주었다.

돌봄을 받은 가정들은 “교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가 서로를 기억하고 보듬는 시간이었어서 뜻깊은 사역으로 남았다. [박효민 목사]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가 호흡과 명상에 참여하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힐링타임

26일 오후 6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 7명과 힐링 타임(마음챙김) 및 운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부 힐링 타임에서는 호흡과 명상, 체조를 통해 부모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을 점검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스트레스와 여러 부정적인 감정 해소 및 긍정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안내해 주었다.

2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간담회로 현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여한 학부모는 진정한 휴식을 가졌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100%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유아랑 센터장]

‘소중한 나’를 주제로 진행된 부모 교육



상계백병원

‘소중한 나’ 부모 교육

19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소중한 나’를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 특성을 알아보고 강점과 약점 및 긍정 양육 소통을 위해 어떤 태도와 인식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부부 간의 협력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공감하였다. 부모들은 “스스로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데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나를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맑은반 이진아 교사]

부스에서 참가자들이 키텀을 만들고 있다.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지구사랑 키텀 만들기

본 센터는 20일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댄싱노원’ 행사의 가족 테마존에 참여하였다. ‘춤추는 도시, 숨쉬는 지구’ 주제에 맞춰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지켜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북극곰, 거북이 키텀’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1,500여명이 방문하여 만들기에 참여하였고 정성껏 꾸며 완성한 나만의 키텀을 손에 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스 내 모빌과 각종 안내문도 재활용 박스와 주워 온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꾸였고, 현수막과 만들기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업팀장 최은혜]

보나 민속의 날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하였다.



상계5동어린이집

보나 민속의 날

30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참여한 ‘보나 민속의 날’을 진행하였다. 추석 전통 놀이와 음식을 함께 만들며 전통문화의 유래와 공지를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까지 익혔다. 친구들과 규칙을 잘 지키며 서로에 대한 협동과 배려심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를 흐뭇하게 해주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명절이 주는 넉넉한 여유와 정까지 교감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미소 가득한 아이들을 보며 교사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늘사랑과 꿈빛이 함께 진행한 한마음체육대회



늘사랑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27일 꿈빛어린이집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만 0세부터 만 3세의 모든 영유아와 가족들까지 참여해 즐겼다. 영유아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뛰며 던지고, 대소근육의 신체 활동으로 몸의 균형과 협응력을 발달시켰다.

가족이 참여한 게임은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과 성취감까지 경험하게 했고, 웃음과 응원 속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력까지 향상됨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더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체육대회가 온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참여자들이 영화 치료 집단상담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



릴계우리통합상담소

영화치료 집단상담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영화 치료 집단상담을 가졌다. 영화를 활용,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집단 내에 존재와 삶의 의미, 실존적 성장을 경험해 보는 것에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

상담원들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공감과 수용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상담을 통해 대인관계 안에서 맞게 될 어려움 등을 다루며 피해자의 성장과 회복에 최선을 다해 갈 계획이다. [김지은 상담사]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교회(반세호 목사)	1622만원(운영)	오임택	150만원(장학)
오윤선(기초교육원)	5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최정권(총장)	423만원(운영)	최지웅	136만원(운영)
홍공중앙교회	345만원(운영)	성서밀알선교회	105만원(운영)
성음문화재단	300만원(장학)	임순복	100만원(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	300만원(장학)	정휘진(법인사무국)	100만원(운영)
대전새로남교회	2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현철 심인자 심희남 오재엽 전상호 손잡는교회 2구좌 박해숙 이윤희 이재은 3구좌 고은영 김은선 설보경 10구좌 김장교	재학생 및 가족 2구좌 김선화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유진 김지호 김춘하 김형중 박인혁 서한나 이가영 전광선 2구좌 고진주 김세원 이지민	3구좌 유수연 10구좌 홍소윤 어린이양교회 2구좌 한지화 효성교회 1구좌 김소아 문경녀 2구좌 진효숙	일 반 1구좌 임숙자 2구좌 서경숙 행복한국교회 단체 및 기관 1구좌 맘키즈푸드 3구좌 주식회사 이수전기
--	---	--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광미화 곽원국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순기 권윤희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기상혁 김가영 김도훈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욱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현 김재현 김정희 김종환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문성령 문수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사회영 손영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대민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성민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오세천 오찬미 오재엽 오현호 유아름 유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하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윤희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별 이현무 이현설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현 정지현 정진영 조민원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한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에린 강해든이 설애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고난홍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금필규 김득희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철 김정복 김중재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박준호 박해숙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기환 신정섭 신화영 안선태 양연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준 이선영 이슬강	이예원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이혜영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지다은 최수지 최윤경 최윤준 최인경 최현우 최효정 탁명화 함미미 허춘선 홍진옥 황인숙 등대교회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설보경 성인선 문윤순 이길순 이디윤 이만나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줄은교회 4만원 박민주 박인순 박주는 배정환 신은진 임수경 홍혜주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정부 남희경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준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지는 최경환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6만원 서성숙 정동주 10만원 김선숙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백승우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이례장학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박예찬 22만원 성낙표 100만원 임순복 105만원 성서밀알선교회 재학생 및 가족 3천원 임수연 1만원 강성철 김성아 나예린 박윤경 박인애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이연선 이정민 이정윤 이하람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계화 조윤경 지중배 한승천 홍정훈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권유주 김미숙 김선미 김선옥 김선화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문순용 문혜진 박유순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신주현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동훈 이만호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소희 이승진 이승찬 이용구 이은영 이재은 이혜란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미 최경애 최문정 최영숙 최유승 최창호 함은애 허 정 3만원 박보복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황미숙 4만원 박은영 5만원 김명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성정자 손미현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정주화 정태리 한선희 10만원 장은정 50만원 이만영 150만원 오임택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광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호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요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신 군 양승연 이지민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옥환 정현아 조성찬 진달래 허요민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	---	---	--

기부자 명단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혜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이소연 정자용 추연진 4만원 김덕원 윤혜진 5만원 구광연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윤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현우석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필 최은희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용기 13만원 김중완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한진호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50만원 강우정.강 진 100만원 정취진 423만원 최정권 500만원 오윤선 부설기관 1만원 김효진 송유정 유희주 호한나 3만원 구세관 권효진 박미라 박천순 안미희 유정현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차도영 월계지역아동센터 6만원 변송이 장나혜 10만원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동광교회 1만원 김복래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교회 9천원 오경모 이경한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이대한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고나경 고미숙 권은정 김문정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인영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주형 박천순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양태환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무현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임용택 장기영 장은정 장진희 정갑순 최영태 최요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허진순 2만원 변경선 2만7천원 민영빈 박태수 3만6천원 강유진 김동석 김배열 김인자 박 선 박선하 반해민 반해성 오차숙 현호민 4만5천원 김영현 김효정 박은경 유형창 윤도진 최강희 5만4천원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이숙영 이정임 최선희 7만2천원 김유미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일 김용희 김원태 박세건 박은우 서수희 이경신 임성일 최대만 한진호 18만원 김태수 이은실 27만원 박정훈 1622만원 성서대학교교회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5만원 표길홍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혜선 24만원 황인돈.김순자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삼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혜란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금례 유화실 이관현 이사랑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윤희 이현수 임숙자 정해숙 조동빈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은실 황영수 한국인재인증센터 2만원 강명옥 강상래 권소영 김미금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김천수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임홍직 정주아 정 진 조목장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4만원 서경숙 장단희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김옥례 서미혜 우남용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40만원 박순정 55만원 최미희 136만원 최자용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짬/동신자원 /바르코복원교회 /열방교회 3만원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스즈 5만원 녹수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증계점/사랑샘교회 /예일에드컬 /천성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비디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사록교회/성복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인천제2교회 30만원 (주) 주 안/한민제일교회 50만원 경성교회/동서환경(주)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2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300만원 성음문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345만원 홍콩중앙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유미 김지은 김하예 유주연 이윤희 이은정 임재택 정재연 최미정 탁국현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3만원 문유나 오윤아 5만원 이지연 유아랑 월계성서교회 7만원 김선화 35만원 오동준 소계(20250821~20250920) 76,332,230 누계(20250301~20250920) 524,184,904
--	--	---	---

한국성서대학교 10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8,955,900원)

최정권(총장) 4,226,912 / 장현진(교직원) 1,500,000 / 최지웅(일반) 1,363,620 / 최미희(일반) 545,368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500,000 / 이민영 (재학생) 500,000 / 최영태 (前 교직원) 300,000 / 서경숙 (일반) 20,000

약정 후원자 (50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6,000,000원)

15구좌 권정아(동문) / 10구좌 우남용(일반) / 5구좌 녹수교회(동문) 어린이양교회(동문) / 3구좌 이영섭(동문)
2구좌 김병수 이지민(교직원), 이만효(재학생) / 1구좌 조현석 고성현(동문), 윤혜진 신은지(교직원), 정해숙 김삼례(일반)

일시납 누계(2025.3.1.~2025. 9.26) 82,533,600원 / 약정자 누계(2025.3.1.~2025.9.26) 302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6,240,000원